



허동수
〈LG-Caltex정유
대표이사 부회장〉

친애하는 CU임직원 여러분!
신사년(辛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The Leader in Providing
Total Energy Service”를 새 비전으로 선포하였으며, 새 비전 달성을 위한 기반
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종합에너지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발전부문 첫번째 민영화 대상인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를
인수하여 LG파워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신라도시가스를 인수하여 서라벌도시가스를 설립하였고, 경
남에너지와 지분참여를 통한 전략적 제휴를 완료하였으며, 해양도시가스 인수 및 강남도시가스와의 지분
참여를 통한 전략적 제휴도 추진 중에 있어 명실공히 도시가스 사업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는 발전 및 천연가스사업 진출에 대한 CU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향후 가스공사의 민영화 등 에너지 관
련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사업분야에 있어서도 지난 10년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DAC(Dais Analytic
Corporation)사와 합작하여 연료전지 전문 회사인 CETI(Clean Energy Technology Inc.)를 출범시켰으
며, 연료전지의 국내시장 및 아시아시장의 선점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기존 사업영역
과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체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난 3년간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ERP Project를 성공적으로 마
무리 지음으로써 Value Chain e-화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e-business 분야의 새로운 사업 Model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Driver Portal, Service Station Portal, PetroCosm등의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업기회 확대 및 진출과 더불어 내부적인 혁신활동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
었습니다. Six Sigma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지난해까지 총 69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PIP(Profit Improvement Program), MIP(Management Innovation Program), SCM(Supply Chain
Management) 등 각종 혁신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수익성 향상 및 업무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였습
니다. 또한, 성과주의 문화에 있어서도 성과창출의 기반이 되는 Job Competency와 성과측정지표를 도출
하여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납득성을 제고하였으며, 과장급 이상 연봉의 차등 인상 및 Sigma Six
Incentive 도입 등을 통해 성과주의 문화 정착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친애하는 CU 임직원 여러분!

정부 및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은 한결같이 올해의 경영여건이 지난해 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고유가와 물가불안 등에 따른 에너지소비증가 둔화, 그리고 경쟁사간 경쟁 심화 등은 결국 정유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건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모두가 합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우리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나는 금년을 “내실 강화”를 위한 한해로 삼고 다음의 세가지를 경영방침으로 하여 철저히 실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사업분야에 있어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원가절감을 통하여 세계적인 원가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모든 신규투자에 있어서 목표 수익률에 따른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사업 분야에서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철수를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이 CU에 편입된 신규 회사들도 조기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수익성 위주 경영과 더불어 현금흐름 위주의 경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수익성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현금흐름 면에서 불안정하다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사내 각 분야에서 위험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공장 등 각 현장에서의 안전 환경 문제는 물론, 국제원유가 및 환율의 급등락 등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있는 불확실한 변수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떤 경영 환경하에서도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온 각종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겠습니다.

Global 경쟁체제 및 Digital 경제체제 가속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Six Sigma, MIP, PIP 등 각종 혁신활동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성과창출을 극대화 하는 한편, 이러한 혁신활동의 성과가 회사 경영성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가시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혁신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가동중인 ERP를 기반으로 하여 SCM 및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 Value Chain 모든 단계에서 e-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으로는 최적의 물류 흐름을 유지하고 밖으로는 고객 밀착경영을 강화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탄력적인 조직으로 변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활동이 전담부서나 일부 관리자에 의하여 추진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내부 Communication 활성화를 통하여 혁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동참할 때 비로소 성공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를 향하여 challenge하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여 회사의 성과향상에 공헌한 팀은 물론 개인에게도 이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주의가 CU전체로 확산되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과주의 확산시행과 더불어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성과주의와 책임경영체제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입니다.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성과결과를 해당 구성원들이 공유할 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건전한 노경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겪어왔던 노경관계는 아직도 개선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최고경영자로서 앞으로도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경영실적을 임직원과 공유하고 투명경영을 통한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노경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건전한 노경 문화가 조성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설정한 비전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노경이 든든한 동반자로서 무한 경쟁을 헤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CU임직원 여러분!

우리가 큰 희망으로 맞이하였던 21세기는 그 시작부터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에너지 산업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정유산업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청정에너지에 대한 요구 증대 등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CU로서도 이에 대비하여 LNG 및 대체에너지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유산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으로서 수익창출의 원천이 될 것이며,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CU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증대되는 불확실성의 시대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과는 다른 경쟁의 형태, 과거와는 다른 경영방식, 우리의 선배들이 택하였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존방식을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업 및 생산 일선 현장은 물론 모든 지원부서에서도 창의와 유연한 사고로 업무에 임하고 강한 투지, 도전적 자세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올해는 기필코 탁월한 성과를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내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